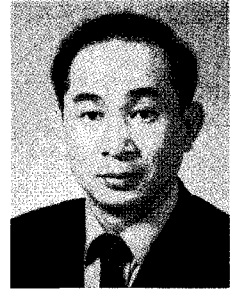


환경변화와 삶의 질

우리 세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이 많이 쓰는 등 낭비적이고 방만한 생활 양식을 지양하고
 쓰레기가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는 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습관, 이러한 경제체제,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천년 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작은 사명이라 생각한다.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인류가 기온을 측정할 이래 연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10년이 모두 지난 20년 안에 포진되어 있으니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경고는 이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변화한다지만 생활 주변에서의 변화도 이에 못지 않은 듯 싶다. 삼한사온의 겨울 기후 패턴은 이젠 드문 현상처럼 되었고, 수정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동식물들이 계절을 넘어 때와 장소를 바꾸고 있다.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연속된 재해도 일상사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 기상이변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상이변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인류가 사용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낭비를 들고 있다.

국가 간에도 지구를 덮게 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듯 커다란 주제와 국제적 의제라고 하여 일반 시민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결국 모든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고, 그 소비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겨울에도 집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지내고, 그것도 부족하여 창을 열어 열을 식히고, 제대로 단열재를 시공하지 못한 주택과 아파트에서는 한 밤중에도 쉴새없이 에어컨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와 자원 낭비가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주범인 것이다.

지구상에는 이미 60억이 넘는 인류가 그것도 서구 선진 사회의 소비 수준을 목표로 '잘살기 운동' 즉, 소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십년 내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 그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와 자원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 때문에 소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론에 묻고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한 가지 물건의 사용 기간을 2배로 늘리면 자원 낭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창문의 틈새나 단열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쉴새없이 돌던 에어컨은 반만 돌게 된다.

천연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보다 스티로폴 단열재나 신소재의 개발 및 활용이라는 친환경적인 소비형태에 주목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질'이란 단순히 문명의 발달과 맞물려 인간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삶의 형태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인류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특히 주어진 환경을 유지하고 그 환경을 우리의 후대에까지 되물려주는 공생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질은 가치를 더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자원 재활용과 친환경성 소재의 개발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삶의 질은 '마음껏' 하는 소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야말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제 기후를 탓하고 국제협약을 걱정하기 보다 개개인 주변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버려지는 자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기 때문이다. ㉞